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제155차 농업위원회 회의 참석
정책과제(OECD 회의 대응 및 전략 수립) 수행목적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최수아 사무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3. 출장일정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11월 30일(화) 10:15	인천→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12월 1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155차 농업위 회의참석	2박 2일
12월 2일(목)	OECD Conference Centre	155차 농업위 회의참석	3박 3일
12월3일(금)~4일(토), 13:30	파리→인천	귀국	3박 5일

4. OECD 제155차 농업위원회 의제 목록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Policy Forum on Global Food Security - 50th Anniversary Event	
Item 2	Adoption of the Agenda	TAD/CA/A(2010)2
Item 3	Adoption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154th Session	TAD/CA/M(2010)1
Item 4	Director's Statement	
Item 5	Update on Horizontal Initiatives	
Item 6	Update on the OECD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for 2011-12 (PWB)	
Item 7	France's Presidency of the G20	
Item 8	Global Relations Strategy for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TAD/CA(2010)14
Item 9	Ad-hoc invitations for 2011 for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its subsidiary bodies	TAD/CA(2010)15
Item 10	Proposed change to the allocation of work between the subsidiary bodies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TAD/CA(2010)16
Item 11	Meeting Plans 2011	TAD/CA/RD(2010)2
Item 12	Reports from subsidiary bodies	
12.a	- Group on Commodity Markets	TAD/CA/RD(2010)3
12.b	-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TAD/CA/RD(2010)4
Item 13	Part II programmes reporting	
13.a	- Codes and schemes	TAD/CA/RD(2010)5
13.b	- Report from the 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	TAD/CA/RD(2010)7
Item 14	OECD-wide communications activities for the 50th anniversary	
Item 15	Update on the preparations for the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s(AKS) conference, 15-17 June 2011	TAD/CA/RD(2010)6
Item 16	Designation of the bureau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for 2011	

5. OECD 제15차 농업위원회 회의결과

□ 핵심요지

- OECD 50주년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식량안보정책포럼을 개최함(12월 1일 오전)
 - 세계 식량안보는 모든 국가들이 연계되어 있고 농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 빈곤경감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문제임. 따라서 생산성 증가를 통한 식량증산, 무역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술개발 및 혁신, 자원의 재생가능한 관리방식, 농촌 개발을 통한 빈곤해소 등의 다양한 정책의 혼합적인 실행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의 구매력을 키우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생산량 증대와, 농산물 교역의 역할이 중요함. 참고로 올해(2010)의 생산량 감소는 내년(2011)에 2008년도와 같은 농산물가격급등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한편, 프랑스는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향후 G20의 주요이슈로 소개하였음.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농산물 가격변동성 및 식량안보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OECD 모든 위원회의 수평적 협력사업으로 진행중인 '식량안보, 녹색성장, 물 관리, 무역과 고용, 여성(gender) 등에 대한 경과보고 및 농업위차원에서의 수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농업위원회의 대외관계 강화전략과 관련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의 경우 산하작업반의 다양한 활동에 공식(또는 비공식) 읍저버 형태이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반면, 인도의 참여의지 부족, 중국의 관심사항 위주의 선별적 참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부족 등은 향후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2011~2012 사업예산계획 보고, 산하작업반 활동결과 보고, OECD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농업지식정보시스템(AKS) 회의 준비 등이 논의됨.

□ 관찰 및 평가

- ‘식량안보’가 농업위원회의 핵심이슈로 논의되는 가운데, 차기 G20의 주요제인 ‘농산물 가격변동성’과도 밀접한 관련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앞으로 진행될 국제식량안보 논의를 수입국으로서 잘 활용하는 동시에 수출국의 시장개방(무역자유화)의 근거로 역이용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0년도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1년에 2008년도의 농산물 가격급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국내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작업반간 업무 재조정(농정시장작업반과 농업과무역합동작업반), 2011년도 회의일정 등의 논의에서는 이전대상 의제의 선정에 있어 이견이 존재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의제분량 감축, 의제검토과정의 효율화, 회의일정에 있어 참여국 편의반영과 같은 실용적인 요구사항들이 제기되었음.
 - 다음 농업의 회의에 사무국은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 전달하여 반영할 필요 있음.

(1) 세계식량안보 정책포럼

Policy Forum on Global Food Security - 50th Anniversary Event

- OECD 5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위는 FAO와 회원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였음(10:00~13:00).
 - 5명의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회원국 대표들과의 토론, 사무국의 의견 개진 순서로 진행됨.

- Hafez Ghanem (Assistant Director General, FAO)
 - 식량안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가 함께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① 생산성증대를 위한 농업부문의 투자확대와 ②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는 것임.
 - 개도국의 경우 농업부문의 투자는 대부분이 농민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으로 정부재정, FDI 순으로 구성됨. 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는 향후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임.
 -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은 농가소득,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정부와 국제기구는 농산물 재고, 농산물 무역, 선물시장, 위험관리(농업 보험 포함), 사회안전망 등의 사안에서 적극적인 정책공조를 모색하여야 함.

- Ambassador Patricia M. Haslach (Deputy Co-ordinator for Feed the Future, US)
 -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R&D, 인프라 투자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은 40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농업생산성 향상, 지역개발, 농관련산업 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음. 개도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농업부문에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따라서 민간투자의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모색해야함.

○ Yamashita Masayuki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Affairs, MAFF, 일본)

- 식량안보 관련 2010년 APEC 정상회의 (Niigata 10월 16~17) 결과 소개.
- 두 가지 중요 논의사항은 ①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②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임.
-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국들은 R&D 및 인프라 증진,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농업부문 긴급사태에 대비한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 농촌지역개발과 식량안보강화의 시너지 효과에 관한 정보공유,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정보·정책 공동대응 등을 합의하였음.
- 무역활성화와 시장투자과 관련하여서는 농업부문 투자지원, DDA협상 지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공조 등을 합의함.
- 식량안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현재 식량자급률이 40%인 일본은 2020년까지 50%로 증가시킬 계획임.

○ Derek Flynn (Deputy Director at UK Foresight,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 발표주제 : Global Future of Food and Farming
- 문제제기 : "How can a future global population of 9 billion people all be fed healthily and sustainably?" : 수요, 생산 및 공급, 환경 관련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2050년 식품시스템을 전망함.
- 5가지 직면과제 : ① 수요와 지속가능한 생산의 균형 ② 미래의 변동성 대비 ③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생산량 증대 ④ 기아 근절 ⑤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보전
- 세계 식품시스템 분석(각국의 수요 및 생산, 가공, 유통의 변화)은 식품 분야의 불확실성과 국제적인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식품시스템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수요 및 생산, 가공, 유통의 변화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상호작용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사할 수 있음.
- 미래 직면과제들에 적합한 새로운 과학적 성과나 정책적 수단을 고려해야 함.

○ Robert Day (Director, International Fisheries Policy, Fisheries and Oceans, Canada)

- 수산과 식량안보위기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수산분야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① 국제적인 거버넌스, 규정, 정책 등에 있어 공조가 필요하며, ② 수산업 관리 강화(법적 기반 마련, 과학적 진전)와 ③ 양식업의 발전, ④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특히 수산분야 인프라 개선은 25%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회원국 발언요지

- 뉴질랜드는 식량안보의 개선을 위한 국제무역의 역할, 개도국, 선진국, 국제기구의 차별적인 역할을 규명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함을 지적함.
- 한국은 지난 9월 경주에서 열린 FAO 아태지역총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던 국제 식량부족 문제와 빈곤해소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소개함.
- 핀란드는 수산분야 인프라 개선이 이 분야의 효율적인 식량수급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같은 맥락에서 수산분야의 Food Chain 구축 또한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함.
- 캐나다는 금융위기나 농산물가격폭등이 없었던 2006년에도 기아, 빈곤 문제는 여전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식량위기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대응이 구별되어야 함을 지적함.
- 스위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이를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을 결정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프랑스는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목하고, 가격변동성에 대비한 국제적, 지역적 대처방안이 구별될 수 있음을 지적함.

○ 발표자 응답 및 사무국 발언요지

- 올해(2010)의 생산량 감소는 2008년처럼 내년(2011)에 농산물가격급등을 불러올 소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의 구매력을 키우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생산량 증대와, 농산물 교역의 역할

이 중요함.

- 식량안보 문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 빈곤감소 등을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문제이며,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정부의 공조가 필요함. 개도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농가수준의 민간투자의 확대가 중요함.
- 세계 식량안보는 모든 국가들이 연계되어 있고 농업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문제임. 따라서 생산성 증가를 통한 식량증산, 무역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술개발 및 혁신, 자원의 재생가능한 관리방식, 농촌 개발을 통한 빈곤해소 등의 다양한 정책의 혼합적인 실행이 요구됨.
- OECD는 식량안보를 모든 산하위원회에 공통되는 최우선 의제로 삼아 다루도록 하였으며, 전략적 개발목표 작업반(DEVGOALS WG)이 선도 프로젝트로 시행하고 있음.

(2) Adoption of the Agenda

- 승인

(3) Adoption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154th Session

- 승인

(4) Director's Statement

- 그 동안의 농업위원회 관련 사안 및 행사에 대한 간략한 경과보고를 함.

(5) 위원회 수평적 협력사업 경과보고

Update on Horizontal Initiatives

- 사무국은 OECD 모든 위원회의 공통적인 주요 안건으로 식량안보, 녹색 성장, 물 관리, 무역과 고용, 여성(gender) 등이 선정되었음을 보고함.
- 무역과 노동의 경우 G20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짐(2007년 6월 토론토 G20부터 논의 시작, 2010년 11월 서울 G20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 별도

섹션 지정은 없었음). 무역자유화와 일자리감소, 고용 없는 성장 등의 이슈와 관계됨.

- 사무국은 내년도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Annex 1)에 포함될 예정인 “농업과 녹색성장” 파트의 검토가 12/6~8 일 개최되는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 이루어지며, 이 회의에서 개정되는 초안에 대해 회원국의 요구대로 위원회에 신속한 정보제공을 약속함(구체적인 내용, 일정 및 농업위의 역할 포함).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녹색성장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유통, 소비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 측면만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함.
- 회원국들은 농업에서 어떤 부분이 여성(gender)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고, 고용이나 농업경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였음.

(6) 2011-2012 사업예산계획 보고

Update on the OECD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for 2011-12

- 사무국은 지난 농업위 회의 이후 진전된 작업예산계획(PWB)을 보고함.(12월 16일까지 이사회에서 채택 예정)
- 일부 회원국들(프랑스, 일본, 뉴질랜드)은 향후 농업위에서 PWB에 관한 논의 시에는 전년도 예산안 및 당해년 예산계획안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강조함).

(7) 프랑스의 G20 의장국 수입관련 : 정보제공

France's Presidency of the G20

- 프랑스 대표는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G20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소

- 개와 함께 농업분야와 관련된 의제인 농산물 가격변동성(가격전이 포함)의 주요 논점에 대해 설명함.
- 농산품, 특히 곡물 가격의 급변동(2008년)은 세계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되며, 개도국의 농촌개발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과도 연계되는 이슈임.
 - 이러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적인 정책공조 또는 역할분담(국제기구, 선진국, 개도국, 수출국, 수입국 등), 둘째, 시장의 투명성 확보(국제·지역 곡물시장, 농산품 수급·교역·재고 등의 통계 구축), 셋째, 금융시장(선물시장 포함)의 활성화(규제 정비 포함)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위원회는 프랑스의 G20 관련 계획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협조를 기대함.
- 일부 회원국은 G20 의제인 농산물 가격변동성과 관련하여 농업위가 별도로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를 문의함.

(8) 농업위원회 대외관계 강화 전략 : 비공개로 진행됨

Global Relations Strategy for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 이사회는 5개 신흥경제국(EE5: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과 관계강화(Enhanced Engagement)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지침서 [C(2010)100/REV2]를 승인했음. 이 지침서는 산하 위원회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계전략에 이러한 이사회의 우선 목표가 적합하게 반영되어있는지 재검토하기를 주문함. 이에 대응하여 이 보고서는 농업위가 EE5 및 ASEAN과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이나 사업들을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함.
- 사무국은 EE5, 옵저버, 회원국 지위의 차이(권한, 의무, 가입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함. 회원국들은 연계강화전략과 관련한 사무국, 위원회, 산하작업반, 대표단 등 각각의 역할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농업위의 관심사항과 이들 국가들(EE5, 옵저버)의 관심사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당부함.
- 회원국들은 연계강화 관련 연구(작업)들이 대상 국가들이 아닌 회원국의

선택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제안에는 EE5나 읍저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부족해 보인다는 견해임(프랑스).

- 네델란드는 향후 식량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미미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캐나다는 보고서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함.
- 회원국들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참여, 남아공의 높은 참여 의지, 중국의 선별적인 참여, 인도네시아의 본격적인 참여 예정(2011년), 인도의 참여의지 부족, 나머지 ASEAN 국가들의 연계미흡 등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들과 연계의 정도를 농업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책 토론과 농정검토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를 보임(미국).
- 향후 연계강화 관련 행동계획(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OECD 그리고 농업위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에게 그동안 어느 정도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줬으며, 이들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필요함(미국).
- 사무국은 남아공이 농업무역합동작업반에 공식 읍저버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위 외에도 무역위의 별도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회원국 대표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함.

(9) 2011년 농업위원회와 부속작업반의 읍저버 특별 초청

Ad-hoc invitations for 2011 for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its subsidiary bodies

- 농업과 무역 사무국은 2011년도 농업위원회와 부속작업반회의에 어떤 읍저버 나라들을 특별초청할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동의를 구함.
- 위원회는 이 제안을 승인하였으며, 이 안은 외부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로 제출될 예정임.

(10) 농업위원회와 산하작업반간의 업무분장 조정안 토론

Proposed change to the allocation of work between the subsidiary

bodies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 작업반 의제의 조정(재배치)의 주된 목적은 회의일정을 조정하여 대표단의 충분한 의제검토를 보장하고 사무국의 과중한 업무집중을 완화하는 것임.
- 이번 제안은 APM 회의에서 다루던 3.2.2.1 비목인 시장과 정책의 중기 전망(Outlook, AgLink Cosimo, 농산물시장의 구조적변화로 구성)과 3.2.2.3 비목의 농업과 개발(글로벌식량안보, GFA, MAFAP, 영세농 위험 등으로 구성)의 대부분 의제를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회의로 이관하는 것임.
-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중기 전망, 농산물시장의 구조변화, 식량안보 관련 의제들은 APM이 계속 소관(통제)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제들이기 때문에, '농업과 개발' 관련 의제들만 APM에서 JWPAT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지함(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소관 의제(개발 관련 의제 제외)의 변경 대신 APM 일정의 확대(1년에 4번)를 제안함.
- 대다수 회원국들은 작업반간 의제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의 길이, 제출시기, 검토 단계, 작업반에서 다룰 보고서의 성격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EC,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 보고서는 25 page 이내의 분량이 적합하며, 프리젠테이션 또는 요약(summary) 내용을 대표단들이 검토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EC).
- 심포지엄이나 포럼에 발표된 보고서를 APM에서 다시 의제화하여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함(미국).
- 농업위원회의 PWB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산출 분야의 경우, 농업위에서 일부 작업반 의제를 검토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 있음(뉴질랜드).
- 농업위 소관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는 의제들(예를 들어 Outlook)을 JWPAT로 이관하는 방안
- 농업위 대표단 코너(Delegation Corner)에서 서면의견 교환을 활성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고서의 검토 단계를 줄이는 방안과, 보고서의 진행상황에 따라 APM과 JWPAT의 교환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안 제시(US, 덴마크)

- 남아공은 현재 JWPAT에서 공식 옵저버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반 의제의 재조정, 특히 남아공과 관련된 ‘농업과 개발’ 의제의 JWPAT로의 이관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움. 아르헨티나는 APM 의제들이 분리되는 것에 반대하며,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모든 보고서에는 스페인어 번역본이 필요하는 입장을 피력.
- 스위스, 뉴질랜드, 한국은 작업반간 의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APM과 JWPAT이 연달아 열릴 경우, 본래의 재조정 취지가 무의미해지므로, 회의 일정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을 지적함. 또한 뉴질랜드와 한국의 경우 본국과 OECD 본부와의 물리적 거리가 크기 때문에 두 회의 (APM, JWPAT)가 1주일 정도의 짧은 시차로 연달아 열리는 경우 대표단 파견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사무국의 고려를 요청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내년(2011)에는 작업반간 의제의 재조정을 하지 않되, 다음 회의에서 수정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함.

(11) 2011년 회의 계획

Meeting Plans 2011

- Item 10과 관련하여 작업반간 의제 재조정이 연기된 만큼, 새로운 회의 일정을 작성하여 대표단에 통보할 예정임.

(12a) 상품시장그룹

Group on Commodity Markets

- 농업전망 보고서에 수산부문이 새로운 장으로 추가되며, FAO 수산국에서 초안을 준비하고, 상품시장그룹회의(4월 4~5), 수산위원회(4월말)에서 검토된 다음, 5월 APM에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임.

- 상품시장그룹은 주요 임무가 OECD-FAO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농업전망인데, FAO에서는 상품시장그룹회의가 가끔 로마에서도 개최(격년제로 교차 개최 포함)되기를 반복적으로 요청함. 위원회는 2011년 일정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에 로마에서 상품시장그룹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사무국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바랍.

(12b) 농업환경공동작업반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농업환경공동위원회 의장(Mr. Frode Lyssandtrae, 노르웨이)이 2010년도 공동작업반의 성과와 주요 발간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함.
-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mitigation)보다는 적응(adaption) 관련 정책을 지지·추구하는 입장이며(JWP 의견 문의),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관련 기술의 이전과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 질의함.
 - 이에 대해 JWP 의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정책은 최적은 영농방식, 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되며, 적응정책과 함께 JWP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국제적인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주제임. 또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비슷하지만 이를 포함하는 보다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13a) Codes and schemes

- Codes and Schemes 4개 프로그램의 2010년도 활동내역과 2011년 계획에 대하여 농업위에 보고함
- 회원국(프랑스, EC)들은 Codes and Schemes 관련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 사무국에 문의하였으며, 사무국은 Codes and Schemes 예산은 참여국(비회원국이 전체 참여국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공통으로 부담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가들의 그룹에서 자체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임을 설명함. (농업위에는 이사회의 승인에 앞서 정보를 제공

하는 차원임)

(13b) 협동연구 프로그램

Report from the 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

- 농업위에 2010년의 CRP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2011년에 CRP에 지원 신청을 한 연구제목과 국제회의 등을 소개함. 2010년 12월 3일에 개최되는 CRP의 Governing Body에서 자연자원(물 관리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2011년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참여를 돌려함. 연구신청 자격은 회원국에만 부여됨.

(14) OECD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논의

OECD-wide communications activities for the 50th anniversary

- 6월 20~21일 농업위원회 이후 22~23일 이틀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대표단이 OECD 50주년 기념식을 후원(host)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함.
- 6월 22일에는 프랑스 대표가 제안한 PWB의 주제와 관련된 현장견학(field trip)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식품체인 또는 위험관리, 식품안전 및 건강, 기후변화 등의 주제 선정과 파리 근교의 농장(농기업) 또는 협동조합 방문 등에 관한 상세한 일정을 프랑스 대표가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합의함. 사무국은 관련 정보를 Delegation Corner에 제공하기로 함.
- 6월 23일 오전에는 OECD 본부에서 2009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Elinor Ostrom 교수(미 애리조나주립대)의 초청강연이 예정됨.

(15) 농업지식정보시스템(AKS) 회의

Update on the preparations for the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s (AKS)conference, 15-17 June 2011

- 회원국들은 회의 구조, 주제, 내용에 대한 comment와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함. (발표자와 참석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포함)
- 개별 국가별 농업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경험 및 정보공유 의지 표명(미국,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보다 실용적이며 대중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 2000년 농업지식체계 컨퍼런스의 경우 1회성 이벤트로 평가됨. 이번 회의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관련 연구가 지속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반과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참여를 요청함.

(16) 2011년 농업위원회 의장단 선출

Designation of the bureau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for 2011

- 스페인과 스위스 대표가 차기 농업위 의장단 선출을 위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자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내년에 뉴질랜드와 미국이 농업위의 공동의장을 맡고,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가 부의장을 맡는 초안을 12월 1일 회의에서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공동의장 체제는 주요 사안에 있어 의견조율이 어렵고, 농업위의 위상약화를 가져오며,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하루 뒤 이번 농업위 회기 내에 회원국들의 의견을 다시 조율하여 단일의장을 추대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의견수렴이 됨.
- 그 결과 12월 2일 회의에서 미국의 Gregg Young 대표가 차기의장으로, 뉴질랜드(Neil Fraser), 프랑스(Guilhem Brun), 일본(Hironobu Naka), 오스트리아(Hedwig Wogerbauer) 대표들이 부의장단으로 선출됨.